

4 뉴스

논란많은 무전공 선발... '이과생 강세' 심화 우려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교육부 방침에 따라 우리학교 무전공 선발 확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인기학과 쏠림, 이과생 강세로 인한 인문계열 학생 진학 축소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국내 대학 무전공 선발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무전공 입학 선발 확대에 문과대의 많은 교수가 우려를 표했다. “무전공 입학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본부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전공 입학과 비슷한 형태의 자율전공학부(자전)의 사례가 무전공 선발 확대의 ‘미리보기’로 보이기도 한다. 자전 학생 학과 선택에서 인기학과로의 쏠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김세구(수학)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자율전공학부의 전공선택에서 취업률이 높은 응용 학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들었다”며 “기초학문 학과의 많은 교수들이 비슷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전은 입학 후 다른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전공 입학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더해 무전공 선발 확대 시 이과생 강세 현상 심화도 예상된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



우리학교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무전공 확대를 논의 중이다. (사진=대학주보DB)

비해 높은 표준 점수를 받는 유리한 구도를 띠고 있다.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었던 2021학년도까지의 수능과 달리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가 ‘확률과 통계’ 응시자보다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연계열 학생의 인문계열 학과 교차지원으로 이어졌으며 자전의 ‘이과생 강세’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 경향은 ‘무전공 선발 확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자전 입학생 중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는 도합 96.4%였으며 2023학년도의 경우 96.7%였다. 입학처는 “2024학년도 역시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학생 비율이 예년과 비슷한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이과생 강세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무전공 입학 정원 가운데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선발 비율을 배정해 두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우리학교 입학처는 교차지원으로 인해 자전에서 발생한 이과생 강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백분위 변환 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자전 정시 전형에서 백분위 변환점수기 준표를 기존의 응시 과목 기준이 아닌 지원하는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한국사 과목 반영 비율을 5%p 줄여 탐구 반영 비율을 25%로

높였으나 2023학년도 자전 입학생 중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는 여전히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송주빈 입학처장은 “한의학, 간호학과, 지리학과, 건축학과 등의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따로 뽑는데 자전과 같은 무전공 학부의 목적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 전공을 자유롭게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 인원과 비율에 제한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송 처장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입학처의 목표”라며 “원하는 전공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게 나은지에 대해 찬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전공 확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며 “반영 과목 및 비율에 대해 어떻게 설계하는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제기능 잃은 강의평가, 강의 특성별 문항 개발 필요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매 학기 1회 실시되는 강의평가가 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항의 부재로 그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강의평가의 취지는 교·강사에게 강의 방법 및 내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평가 결과는 ▲교수업적의 교육 영역 평가 ▲비전임교원 및 강사 재임용 ▲강의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강의평가 문항이 다양한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 위주 강의에 맞게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의평가 문항은 ▲담당 교수가 학습 목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담당 교수가 강의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묻는 공통 문항과 수업의 장점 및 단점을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전체영어강좌는 별도의 특성화 문항이 추가된다. 그러나 모든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에도 10번~13번(사진 참조)처럼 온라인 강의와 관련한 문항에 응답하게 돼 있다. 또한 팀워크, 현장 조사, 교수의 연구 지도가 이뤄지는 캡스톤디자인 강의평가도 이론 위주 강좌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상연(행정학) 교수는 “캡스톤디자인은 팀워크가 발

공통필수문항	학생의견
1. 담당교수는 학습목표, 내용,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본 수업의 장점 및 단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2. 담당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3. 본 수업의 수업방법은 효과적이었다.	
4. 담당교수는 강의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 방법 및 강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5. 담당교수는 학생들과 질문, 피드백 등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였다.	
6. 담당교수는 수업시간과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강의를 충실히 운영하였다.	
7. 담당교수는 명확한 성적평가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8. 나는 본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9. 나는 본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0.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는 상호보완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1.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위한 보충 자료(보충설명, 심화설명, 기타자료 등)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12.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이 학습 효과를 높였다.	
13. 담당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일정과 방법에 대해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였다.	

강의평가 설문지는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는 폐쇄형 문항과 수업의 장점 및 단점을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취되도록 교수가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주제 선정과 자료수집에 교수가 도움을 주었는지 등이 평가돼야 한다”며 “이처럼 강의 특성별로 평가 문항을 다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일(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또한 강의별 맞춤형 문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프로젝트 수업과 같이 개성 있는 수업엔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대 소속 학생 A 씨는 “팀플 수업을 많이 듣는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와 같이 폐쇄적인 문항으로 팀플 수업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의평가 결과가 학생의 학습성취도 향상을 나타내는 척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인터뷰에 응한 교수 대부분은 현재의 강의평가 방식이 효과적인 수업 개선 및 학생 성취도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최서희(지리학) 교수는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학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이 이에 부담을 가져 평가가 낮아진 경험을 했다”며 “신경을 많이 쓴 강의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새

로 시도하고 싶은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학생 B 씨는 현 강의평가 제도가 학생의 학습성취도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 빠른 성적 열람을 위한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B 씨는 “안 좋은 평을 받은 교수님들의 평점과 강의평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강의평가가 실제로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 문항이 가진 모호성도 문제다. 최 교수는 “저번 학기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카카오톡, 메일 등 여러 채널을 열어놨었는데 학생

한 명이 정신없었다는 식으로 평가했다”며 “담당 교수는 학생들과 질문, 피드백 등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했다”는 문항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여러 채널을 만들어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과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일 교수는 교육을 서비스로 인식하고 강의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어느 순간부터 교육을 서비스로 보기 시작하며 등록금을 냈으니 이에 응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다”며 “마치 물건을 살 때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민원을 올리는 것처럼 학교 교육도 단순히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학생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숙(의과학) 교수 또한 “강의평가 자체가 교수와 학생 간 관계를 계약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무처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교강사의 학생 피드백의 충실성, 수업 효과 향상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 강의평가 제도가 학생의 학습 효과와 성장 여부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